보도시점 2026. 11. 5.(목) 배포 2026. 11. 5.(목) 09:30

‘전국 병원체 감시기관 한자리에 모인다’ 감염병 대응 성과와 개선 방안 논의

- 11월 5일 병원체 진단분석 통합 워크숍 개최, 운영 성과와 개선 방안 논의
- 병원체 유행 동향과 유전정보 분석해 감염병 원인 규명과 대응에 활용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**11월 5일**(목)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**「감염병 병원체 진단분석 통합워크숍」을 개최**하여 **국가 병원체 감시체계 사업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**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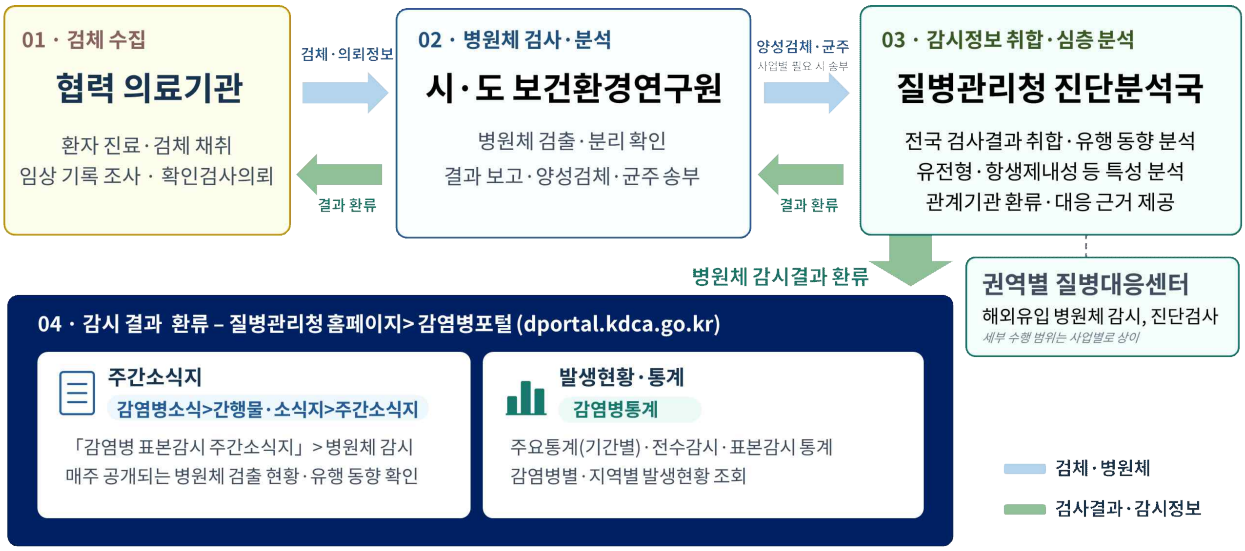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**전국 의료기관과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 병원체 감시체계를 통해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와 유행 동향을 분석**하고 있다.

병원체 감시는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환자 검체를 검사해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·바이러스 등을 확인하고, 유행 양상과 병원체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.

질병관리청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,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**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**(Enter-Net), **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**(K-RISS), **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**(KESS) 등 다양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(붙임 1 참조).

병원체 감시분석을 통해 생산된 정밀 유전정보는 원인균의 유행 양상과 변이 등 주요 변화를 조기에 확인하고, 전파 경로 추적 등 역학적 연관성 규명에 활용되어 감염병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제공된다. 감시 결과는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*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.

* 감염병포털(dportal.kdca.go.kr) > 주간소식지 >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



[그림 1] 질병관리청 병원체 감시체계 흐름도

질병관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감시사업별 운영 결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, 감시정보를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. 이를 위해 ▲의료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, ▲중증급성호흡기감염병(SARI) **감시체계 운영, ▲병원체 유전정보 생산 및 시스템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,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실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.**

아울러 병원체 진단검사와 감시 업무에 기여한 **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표창**을 수여할 예정이다.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"감염병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**지역의 병원체 진단분석 역량과 감시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, 중앙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협력**해야 한다"라며, "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감시분석 결과가 **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협력**을 강화해 나가겠다"라고 강조했다.

이어 "이번 통합 워크숍이 국가 병원체 감시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함께 나누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하며,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단·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겠다"라고 전했다.

<붙임> 1. 병원체 감시사업 개요 및 시·도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
2. '26년 감염병 병원체 진단분석 통합워크숍 행사 프로그램

담당 부서 <총괄>	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	책임자	과 장	김준영 (043-719-8110)
		담당자	연구관	김수연 (043-719-8116)
			연구사	신은경 (043-719-8913)
담당 부서 <협조>	진단분석국 진단관리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재선 (043-719-7840)
		담당자	연구관	김지경 (043-719-7845)
	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	책임자	과 장	주 혁 (043-719-8190)
		담당자	연구관	왕진숙 (043-719-8192)
	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관	주정원 (043-719-8521)
	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박재선 (043-719-7840)
		담당자	연구관	최용욱 (043-719-822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병원체 감시사업 개요 및 시·도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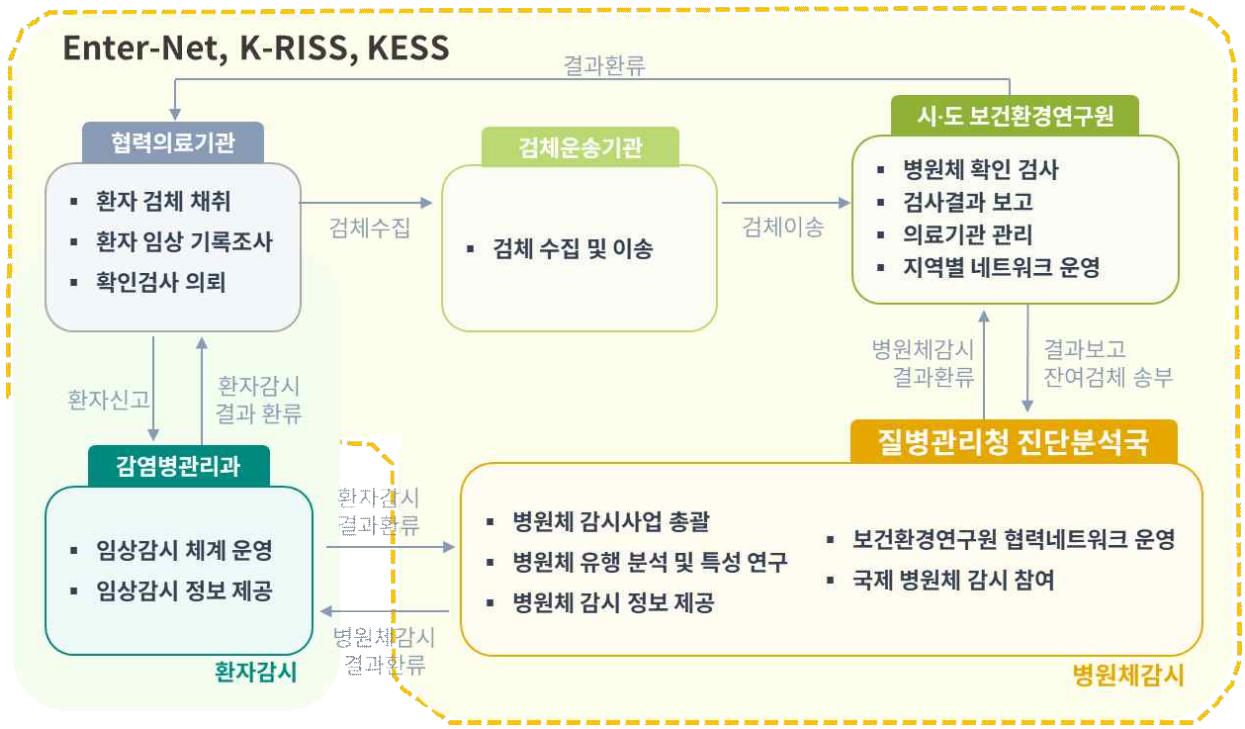
□ 병원체 감시사업 개요

○ 감염병 원인 병원체 유행 및 집단발생 대비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

- 전국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된 참여 병·의원에서 의심환자 검체를 수집하여 원인 병원체 확인 및 특성 분석

* 「질병관리청 누리집-감염병포털-주간소식지」 내 「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」-병원체감시 매주 게시

사업명	Enter-Net (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)	K-RISS (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)	KESS (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)
목적	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를 통해 유행발생에 신속 대응	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한 호흡기병원체 유행 신속 대응	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변이주 및 유행주 감시
감시 대상	급성설사질환 원인 세균 10종, 바이러스 5종, 원충 4종	코로나19,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바이러스 9종	엔테로바이러스
참여 의료 기관	77개	109개	83개



[그림 1] 질병관리청 병원체 감시사업 수행 체계도

붙임 2 | **'26년 감염병 병원체 진단분석 통합워크숍 행사 프로그램**

